

# 영광군 해상풍력 상생기반 강화...어업인 통합 간담회

### 어업인 단체 통합·보상 방안 마련 다양한 의견 교환 신재생에너지 초과 이익 지역 환원 기반 마련도 속도

풍력·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 전군민 이익공유 제를 추진 중인 영광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자와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영광군은 최근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어업인 단체 통합과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간담회는 어업인 통합위원회가 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영광군은 조만간 굽비해양수산과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어업인 대표, 어선연합 협의체 등이 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영광군은 현재 관련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초과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햇빛바람 기본소득 협력단'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광형 기본소득' 1차 이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표 발전사업자인 안마해상풍력과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협의안이 마련되면 군의회, 수협 등 지역 공동체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국회 김병주 의원실 주관으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와 면담을 갖고 해상사격훈련구역(R-108C)과 해상풍력 간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영광군에 조성된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영광군 제공>



공동육아나눔터가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코아루 아파트 1단지에서 주민 축제 행사를 가졌다. <해남군 제공>

## 온 마을이 행복한 해남군 공동육아나눔터

### 지난해 1만 3633명 이용 인기 열린 공동체 공간 '자리매김'

해남군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린이와 가족, 마을까지 행복한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돌보고,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품앗이 활동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부모-자녀 돌봄 활동을 비롯해 품앗이 모임과 놀이 및 교육 중심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기준 1호점(코아루 아파트 1단지 주민편의시설 내) 8360명, 2호점(가족어울림센터) 5273명 등 총 1만3633명이 이용했다.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외에도 고향사랑행복기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프로그램 확대하고 연령별 맞춤형 교구·교재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은 지역 돌봄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역량강화를 통해 더 나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서 12일 전국 맨발 걷기 축제

### 다양한 해양치유 체험 행사도

완도군이 12일 오후 5시 신지 명사십리에서 '전국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자연 속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도의 해양치유 자원 및 맨발 걷기를 결합해 치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맨발걷기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지정 선포식, 다채로운 해양치유 체험 행사 등이 열린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걷기 동호인, 관광객, 주민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해변 필라테스와 엑서사이즈, 머드 팩, 꽃차 시음 등 완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존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모래 해변(3km)과 황토길(1.2km)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고, 완만한 참가자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된다.

축제에서는 7월 6일을 '완도 해양치유의 날'로



명사십리서 맨발걷기 하는 사람들.

지정하는 선포식도 열린다. 군은 공모를 통해 '치유'와 발음이 비슷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치), 6(육)을 치유의 날로 지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고온 모랫길과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은 정도로 청정한 곳"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교도소, 무안중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



김남진 목포교도소장과 관계자들이 무안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뒤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교도소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소속 직원들이 매일 직접하는 사랑나눔회 기금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 중 무안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목포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나눔 실천을 위해 소외이웃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금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남진 목포교도소 소장은 "직원들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돼 훌륭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정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

### 전남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

진도군이 최근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한 '2025년 정신건강 화합한마당'에 참가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간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센터 회원과 가족, 재할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문화 공연과 체육대회, 부대행사(포토존, 카페테리아), 장기 자랑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들은 장기 자랑 무대에서 멋진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상호 신뢰가 한층 깊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암군 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

영암군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의 주민 건강 증진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여되는 것으로, 영암군은 지역 맞춤형 건강서비스, 통합건강관리 모델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보건소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영암군민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사업장 one plus사업 ▲방문 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사업 등 다양한 통합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관리를 위한 '영양이 기억상실증 회복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 인프라, 생활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건강 플랫폼 등 다양한 가치를 충족하는 건강 정책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영암군보건소는 다양한 협력 기관과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중 관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영암군민의 건강 수요에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더 많은 영암군민이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2025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안군 세무과 박꽃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상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지방세정 혁신 포럼' 제도개선 우수상

무안군이 '2025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에서 제도개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22개 시·군이 지방세정 확충 및 불합리한 지방세입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연찬회를 세미나, 기업설명회, 연구과제 발표대회까지 확대·개최됐다.

무안군 세무과 박꽃 주무관은 "불안 전기차, 지역자원시설세에 답 있다"를 주제로 발표해 이번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확산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비해 소방 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전기차 자동차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방세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세정 편의 향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신안 1004몰' 4주년 할인 이벤트 인기몰이

### 쿠폰·적립금 소진 조기 마감

신안군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이 진행한 4주년 기념 할인전이 고객들의 관심 속에 조기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예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사기간 이벤트 쿠폰과 적립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행사 종료로 이어졌다.

행사기간 판매 실적은 총 1억4000여만원이며, 이 기간 신규 회원가입 수가 4000여 명에 달했다. 2021년 7월 오픈 이후 누적 회원 수는 3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획전 마감에도 일부 이벤트는 이어진다. '구매왕'과 '리뷰왕' 이벤트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누적 구매 금액과 리뷰수를 기준으로 상위 고객을 선정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고객 참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실질적인 이용자 확대에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신안1004몰이 지역을 대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의미한 기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